

# 불모지 포장교육 텃밭을 일군다

박태석 동국전문대 포장학과 교수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교육은 그 뜻 그대로 '가르치고 기른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 만큼이나 가르치는 사람 즉, 선생님이란 직업을 갖는 것은 쉽지만 진정한 선생님의 인품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 교육의 길을 천직으로 여기며 학생들과 생활하고 있는 동국전문대 포장학과 박태석 교수를 소개한다.

경상북도 왜관에 위치한 동국전문대학으로 가기 위해 부산행 열차에 올랐다. 교육의 불모지였던 포장업계에 최초의 포장학과라는 점에서 더욱 호기심을 느껴, 가는 동안 기차 안에서 시종 설레이기만 했다.

긴 열차여행 끝에 어느덧 창밖에 '왜관'이라는 낯선 도시가 눈에 가득 들어왔다. 교수님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나 이도 지극하고 딱딱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젊고, 부드러운 인상의 박태

석 교수가 "서울에서 오신 분 맞죠?"라며 약간의 경상도 사투리를 섞으며 말한다.

왜관역에서 승용차로 논밭을 가로질러서 10분쯤 지나니 '동국전문대학'이라고 쓰인 하얀건물이 눈에 띄었다.

93년 3월 1일 개교하게 된 동국전문대학은 포장학과, 사무자동학과, 약용식품학과, 사회복지학과, 장신구 디자인학과, 채화과가 있고 이번 1회 입학생은 총 520명이고 포장학과는 80명 정원이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에는 포장 분야가 중요시 되다 보니 포장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포장은 수출면으로 보나 일반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면으로 보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품의 품질면에 있어서는 그들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뒤떨어져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포장학과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전문대학이 생존하려면 특별한 첨단학과를 필요로 한다는 판단 아래 포장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과신설 동기를 밝힌다.

처음 시작이라는 점 때문에 학술적인 어려움이 많아 커리큘럼을 정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나 현재는 포장공학적 부분과 디자인 부분을 복합하고,

선진 외국대학 포장학과 커리큘럼을 참고로 짜여져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포장학과 학생들의 과에 대한 자부심이 어떤지 묻자. “아직 포장이 정확히 무언지 잘 모르고 있지만 처음 입학 당시 제가 일주일간 포장에 대해 대략 오리엔테이션을 한후로 학생들은 그것을 많이 이해했고 지금은 열악한 포장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에서 열린 서울팩에 참가하고는 자신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박교수의 모습에서 아직은 이르지만 작은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학교의 여건이 열악하고 지리적 여건 문제 등으로 교수진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어 포장 분야의 전문인이 하루빨리 포장교육에 대한 과감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란다

고 토로하기도 한다. 국제경영학을 전공하여 포장 분야에서도 몰류쪽에 관심이 특히 많은 박교수는 자신은 포장을 전문으로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 안타깝다며 다시 한번 포장전문 교수진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교수이다 보니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만나다 보니 이제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교수들의 권위의식을 제 제자들에게 만든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로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박교수는 학생들에게 ‘늘 자신을 수용해라 자신을 인정해라 자신을 이해해라’란 말을 강조

**아직은 학교의 여건이 열악하고 지리적 여건 문제 등으로 교수진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어 포장분야의 전문인이 하루빨리 포장교육에 대한 과감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고 있으며 현시대의 대학교육과는 달리 인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2학기에는 포장관련 업체를 견학을 하여 산·학협동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산업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워 더욱 빨리 포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포장학과 신설에 여러분이 관심을 주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도움을 주는 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포장관련 단체에서 조금씩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덧붙여서 “1회라는 점에서 불리하기도 하지만 잇점도 있으므로 좋은 교수가 초빙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졸업생들이 포장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성장해 모두 취업되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박교수는 현재 포장학과 80명 전원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털어 놓는다.

“우리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뛰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유관업계에선 대책없이 과만 신설해 놓았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는 걸 압니다. 물론 우리 자체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비판하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그것이 나아가 여러분의 회사를, 크게는 포장업계를 발전시킬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말을 마친다.

동국전문대학 포장학과, 아직은 어떤 기대를 하기에는 성급하고 막막하지만 포장업계의 꿈나무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곳임에 분명하다. 비록 지금은 캠퍼스도 어설피고 모든 것이 모자라지만 하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패기있는 지도자가 있는 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다.

이름모를 산으로 둘러싸인 동국전문대학. 사방이 온통 나무로 뒤덮여 있고 인위적인 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디라도 놀러 앉으면 일어나고 싶지 않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포장학과 박태석 교수는 아직은 어려움이 더 많아 자신의 연구에 소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그는 진정한 학자 본연의 모습 또한 잃지 않고 있다.

역까지 배웅 나와 서울행 기차에 오르는 기자에게 손을 흔들며 보이던 박교수의 모습을 멀리보며 언젠가 나를 가르쳐 주었던 잊어버린 나의 선생님을 떠올려 본다.

오늘은 선생님께 문안 전화라도 드려야지... [문]